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 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의 관계

최경숙¹ · 이우숙² · 박연숙³ · 전명희⁴ · 이소영⁵ · 박연우⁵ · 박수영⁶ · Vipavee, Thongpriwan⁴

중앙대학교 간호학과¹, 대구과학대학교 간호대학², 공주대학교 간호학과³,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간호대학⁴,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⁵,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간호대학⁶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hoi, Kyung Sook¹ · Lee, Woo Sook² · Park, Yeon Suk³ · Jun, Myunghee⁴ · Lee, So Young⁵ · Park, Yeonwoo⁵ · Park, Soo Young⁶ · Vipavee, Thongpriwan⁴

¹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²College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Daegu, Korea

³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⁴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Wisconsin, USA

⁵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⁶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US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Researchers developed two tools for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conducting research team workshops: questionnaire of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20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in convenient sampling to respond to these questionnaires. Of nurses' 10 qualities, major affecting factors on the cultural competency were identifi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perceived technical nursing skills and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as nurses' most important qualities. However, 'having a passion for patient care', 'demonstrating stro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and 'teaching and research ability' were foun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variance of the cultural competency. These three factors explained 16% of the total variances of the cultural competency ($F=13.98$, $p<.001$). **Conclusion:** The educ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cultural nursing competency need to incorporate students' expectations for the professional nurses' roles. Also, further studies need to develop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tools for cultural competency.

Key Words: Cultural competency, Cultural diversity, Nursing education,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는 간호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1]. 최근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이동은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및 중요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2].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민자의 국내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단일 민족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향해 빠르게 이동 중에 있다. 2014

주요어: 문화역량, 문화 다양성, 간호사 자질, 간호교육,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Jun, Myunghee

7109 Sauk Circle, Mequon WI 53092, USA.

Tel: +1-414-639-5562, E-mail: jun2@uwm.edu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3R1A1A2011994).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NRF-2013R1A1A2011994).

Received: Apr 9, 2016 / Revised: Jun 16, 2016 / Accepted: Jun 17,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년 국내 전체 혼인 322,807건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3].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인 1,797,618명으로서 전체 국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2010년 2.50%에서 2014년 3.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중국이 898,654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6,663명(7.6%), 베트남 129,973명(7.2%), 태국 94,314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4].

국내 사회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주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다문화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5]. 이에 따라 다문화현상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보건의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며, 향후 지역사회 간호 분야에서는 국내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문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문화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6].

보건의학 분야에서 사회정의 구현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건강 불균형 감소를 위하여[7], 일선 주민을 돌보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문화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 지역사회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대상자의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8]. 초기 국내의 다문화간호 실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간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간호와 영유아 간호요구가 증가하였고, 도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간호에서 출발하여[9,10], 간호교육을 포함하여 전체 간호실무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다.

문화역량이란 다문화의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 지식 및 기술이다[11]. 최근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국내의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사의 업무에 있어서 다문화 이해를 포함한 문화역량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주요 전문직 간호사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2]. 특히 간호사가 문화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간호사의 문화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높아도 대상자에게 문화능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 역량을 지닌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다른 자질과 태도를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13], 아직 문화역량과 간호사 자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에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고, 미

국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8가지 역량 중 하나로 문화역량을 포함시키고 있다[6,14]. 또한 국내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 다문화 교과과정을 강화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0]. 2013년부터 국내에서도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간호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10]. 특히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건강 형평성 개념과 건강권 보장을 주요 학습 목표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하여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국제적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의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크게 노력을 기울여왔다[15,16].

간호사 자질이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17] 그 동안 이 개념은 전문직 간호의 질을 보장하고, 대상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평가나 목표 설정 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어왔다[18].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자질 중요도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전문직관을 반영한다[19]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화역량을 비교하면 간호학 교과과정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과 문화역량의 변화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0]. 이에 본 연구는 1학년과 4학년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화역량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강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자질 중요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학년과 4학년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간호대학생의 연령, 문화역량 및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간호사 자질 중요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

요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국내 지방 대도시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의 1학년 학생 100명과 4학년 10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2014년 10월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학년 재학생 289명과 4학년 재학생 138명 중 본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남·녀 학생 200명(1학년 100명, 4학년 100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18명이었으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00명의 자료만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효과 크기=.15, 유의수준=.05, 설명력=.95)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였을 때 178명이므로[21],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진이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IRB를 취득하였으며(승인번호: 1041078-201405-HR-088-01),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수업과 관련이 없는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참여 여부에 따른 이득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

4. 연구도구

1) 문화역량

이는 간호사가 실무현장에서 다문화 환자를 만나고, 간호할 때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화적 태도, 지식, 기술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의 문화역량은 3가지 하부 개념을 포함한다. 즉, '문화 인식 및 갈망', '문화적 만남',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로 구성된다. '문화 인식 및 갈망'은 간호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스스로 검토하고 심층 탐색하여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성하고, 문화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만남'은 간호학생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상자를 만났을 때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의

미한다.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은 간호학생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집단의 건강 관련신념에 따른 실천과 문화가치관, 질병 발생률과 유병률 및 치료 효율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대상자의 문화에 맞는 환자 간호와 신체 사정의 실시능력을 의미한다[10].

이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간호역량 측정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간호학 교수 3명, 임상간호사 경험 후 간호학박사과정 중인 연구원 2명, 미국 대학의 글로벌 건강간호센터를 방문 연구 중인 연구원 1명)이 3회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23개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때 Campinha-Bacote[12]의 건강 전문가를 위한 문화능력 측정도구(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Revised, IAPCC-R)와 Rew 등[22]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인식 측정도구(measurement of Cultural Awareness for nursing Student, CAS)를 검토한 뒤, 임상 시나리오를 사용한 설문도구를 제작하였다.

본 도구는 분만을 앞둔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돌보는 간호학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는 2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대학생, 임상간호사, 간호학 교수 및 사회과학 교수의 검토아래 문항을 수정하고,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 49명(1학년 40명, 3학년 2명, 4학년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학년의 경우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학용어 해설을 추가하고 간호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였다. 이때 23개 문항 중 내적 일관성을 감소시키고 전체 문항과 역상관성을 보이는 5개 문항을 삭제하고 18개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 는 .79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8개 문항은 '문화 인식 및 갈망'은 '환자 명단에서 외국인 이름을 보고 실습이 어려워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지', '평소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태도가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을 돌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베트남 식 산후 조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등 9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적 만남'은 '결혼 이주 여성 환자를 돌보기를 꺼려하는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 돌보기를 꺼려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 척도는 '결혼 이주 여성 환자의 통증 표현 해석', '결혼 이주 여성 환자의 신체 검진 기술', '베트남 민족의 질병 특성이나 약물 반응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하는지' 등에 관한 문항 5가지로 구

성되었다. 총점은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Cronbach's α 는 .74였다.

2) 간호사 자질 중요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자질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전문직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자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도구의 10가지 전문직 간호사의 자질은 Medigovich[23]의 '훌륭한 간호사(good nurse)' 자질과 Cowan 등[17]의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검토한 뒤 본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간호 기술 발휘', '간호학 전문지식',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건강한 신체 유지', '간호 전문직 윤리구현',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 '교육과 연구능력' 및 '유머감각'을 주요 간호사 자질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 간호사 자질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해당 자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였다.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의 차이는 Stu-

dent's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 지각된 간호사의 자질 및 문화역량과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문화역량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21 ± 3.43 세이며, 여학생 117명(87.5%), 남학생 23명(11.5%)이었다(Table 1). 스스로 평가한 학업 성적에 따른 분포를 보면, 스스로의 성적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1명(30.5%), 중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124명(62.0%),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15명(7.5%)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62명, 31.0%), '안정적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53명, 26.5%), '적성이 맞아서'(42명, 21.0%),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권유'(31명, 15.5%) 때문이었다.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63명, 31.5%)(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Mean Score of Cultural Competency

(N=200)

Characteristics		n (%)	M \pm SD	t or F	p	Scheffé
Year of the students	Freshmen	100 (50.0)	65.63 \pm 6.56	3.12	.002	
	Senior	100 (50.0)	62.69 \pm 6.72			
Gender	Female	177 (87.5)	64.23 \pm 6.45	0.38	.704	
	Male	23 (11.5)	63.66 \pm 9.07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High (the top 30%)	61 (30.5)	64.05 \pm 6.54	0.27	.764	
	Medium (31%~69%)	124 (62.0)	64.06 \pm 6.72			
	Low (the bottom 30%)	15 (7.5)	65.40 \pm 8.48			
Reason for entering nursing college	Aptitude	42 (21.0)	66.12 \pm 7.89	1.77	.136	
	Desire for professional job	62 (31.0)	64.68 \pm 6.13			
	Job security	53 (26.5)	62.98 \pm 5.65			
	Significant other's recommendation	31 (15.5)	62.71 \pm 7.02			
	Others	12 (6.0)	63.58 \pm 8.81			
Moment when to choose the nursing as a major	Before starting high school ^a	31 (15.5)	66.58 \pm 8.63	3.82	.005	a > b b < c
	Freshmen year in high school ^b	27 (13.5)	60.30 \pm 4.09			
	Sophomore year in high school ^c	39 (19.5)	65.51 \pm 6.57			
	Junior in high school ^d	63 (31.5)	64.08 \pm 6.24			
	After taking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e	40 (20.0)	63.70 \pm 6.73			
Total		200 (100.0)	64.16 \pm 6.78			

2. 문화역량

간호대학생의 평균 문화역량은 64.16 ± 6.78 이었다. 하부척도 별 평균점수를 보면, '문화 인식 및 갈망'은 3.56 ± 0.44 , '문화적 만남 시'는 3.74 ± 0.67 ,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은 3.43 ± 0.47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 차이의 분석 결과(Table 1), 여학생은 64.23 ± 6.45 점으로 남학생의 점수 63.66 ± 9.07 보다 높았으며, 학교성적에 따른 문화역량의 차이를 보면, 하위 성적 군은 65.40 ± 8.48 , 상위군 64.05 ± 6.54 , 중위군 64.06 ± 6.72 로서 하위군이 가장 높았다.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에 따른 문화역량은 적성이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군(66.12 ± 7.89)이 다른 군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학 선택을 결정한 시기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결정한 군이 66.58 ± 8.63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한 군으로 65.51 ± 6.57 점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한 군은 60.30 ± 4.0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간호학선택을 결정한 시기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Table 1). 연령에 따른 문화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Table 3),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화역량이 낮아지는 역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03, p = .646$).

3. 간호사 자질 중요도

전체 대상자가 지각한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평균값이 높은 순위로 나열하면(Table 4), 간호 기술 발휘(4.71 ± 0.48), 간호학 전문지식(4.67 ± 0.50),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4.65 ± 0.50),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4.59 ± 0.57),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4.55 ± 0.54), 건강한 신체 유지(4.48 ± 0.68), 간호 전문직 윤리구현(4.42 ± 0.67), 간호학 발전에 기여

하려는 열정(3.91 ± 0.69), 교육과 연구능력(3.63 ± 0.70) 및 유머 감각(3.42 ± 0.79)이었다. 1학년이 지각한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순위는 전체 대상자가 지각한 것과 동일하였지만, 4학년이 지각한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순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4.67 ± 0.49),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 형성'(4.70 ± 0.52), '간호 기술 발휘'(4.67 ± 0.49), '간호학 전문지식'(4.57 ± 0.49)의 순위가 더 높게 인지되었고 나머지 자질은 전체 대상자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Table 4).

4. 연령, 문화역량,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의 관계

연령에 따른 문화역량은 역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03, p = .646$).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호 기술 발휘'의 중요도는 역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03, p = .008$). 나머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연령은 순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각각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 점수와 문화역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간호사 자질 모두는 문화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성을 보였다. 각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화역량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간호 기술 발휘'는 $r = .21$ ($p = .002$), '간호학 전문지식'은 $r = .20$ ($p = .004$),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r = .25$ ($p < .001$),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은 $r = .22$ ($p = .002$),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r = .33$ ($p = .001$), '건강한 신체 유지'는 $r = .23$ ($p = .001$), '간호 전문직 윤리구현'은 $r = .30$ ($p < .001$),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은 $r = .29$ ($p < .001$), '교육과 연구능력'은 $r = .26$ ($p < .001$) 및 '유머 감각'은 $r = .24$ ($p = .001$)이었다.

5. 문화역량 주요 영향요인 분석

상관성 분석(Table 3)에서 문화역량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

Table 2. Mean score of Cultural Competency by Year of the Students

(N=200)

Sub-scale	Number of item	Range	Total (n=200)	Freshmen (n=100)	Senior (n=100)	t	p
			M±SD	M±SD	M±SD		
Cultural awareness and desire	9	1~5	3.56 ± 0.44	3.64 ± 0.43	3.47 ± 0.43	2.77	.006
Cultural encounter	4	1~5	3.74 ± 0.67	3.89 ± 0.64	3.60 ± 0.68	3.14	.002
Cultural nursing knowledge and skill	5	1~5	3.43 ± 0.47	3.46 ± 0.50	3.41 ± 0.44	0.78	.435
Total score	18	18~90	64.16 ± 6.78	65.63 ± 6.56	62.69 ± 6.72	3.13	.002

Table 3. Correlation among Age,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N=200)

Variables	Age r (p)	CC r (p)	Q01 r (p)	Q02 r (p)	Q03 r (p)	Q04 r (p)	Q05 r (p)	Q06 r (p)	Q07 r (p)	Q08 r (p)	Q09 r (p)	Q10 r (p)
Age (year)	1	-.03 (.646)	-.13 (.058)	-.23 (.001)	.014 (.841)	.08 (.220)	.02 (.837)	.12 (.093)	.08 (.263)	.04 (.575)	.04 (.601)	.12 (.095)
CC		1	.21 (.002)	.20 (.004)	.25 ($< .001$)	.22 (.002)	.33 ($< .001$)	.23 (.001)	.30 ($< .001$)	.29 ($< .001$)	.26 ($< .001$)	.24 (.001)
Q01			1	.65 ($< .001$)	.17 (.016)	.17 (.019)	.20 (.005)	.11 (.139)	.16 (.024)	.19 (.008)	.20 (.005)	.14 (.051)
Q02				1	.21 (.003)	.15 (.033)	.23 (.001)	.09 (.194)	.16 (.028)	.25 ($< .001$)	.30 ($< .001$)	.06 (.402)
Q03					1	.49 ($< .001$)	.45 ($< .001$)	.27 ($< .001$)	.30 ($< .001$)	.26 ($< .001$)	.20 (.004)	.32 ($< .001$)
Q04						1	.36 ($< .001$)	.49 ($< .001$)	.44 ($< .001$)	.29 ($< .001$)	.19 (.008)	.36 ($< .001$)
Q05							1	.28 ($< .001$)	.29 ($< .001$)	.39 ($< .001$)	.22 (.002)	.19 (.008)
Q06								1	.49 ($< .001$)	.25 ($< .001$)	.26 ($< .001$)	.34 ($< .001$)
Q07									1	.34 ($< .001$)	.30 ($< .001$)	.32 ($< .001$)
Q08										1	.47 ($< .001$)	.28 ($< .001$)
Q09											1	.25 ($< .001$)
Q10												1

CC=cultural competency; Q01=displaying the technical skills; Q02=having the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base; Q03=communication well wi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Q04=keep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Q05=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Q06=maintaining physical health for herself or himself; Q07=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Q08=contributing to the nursing advancement; Q09=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Q10=having a sense of humor.

Table 4. The Mean Score of the Students' Perceived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N=200)

Importance of nurse's quality	Total		Freshmen		Senior	
	Rank	M \pm SD	Rank	M \pm SD	Rank	M \pm SD
. Displaying the technical skills	1	4.71 \pm 0.48	1	4.75 \pm 0.46	3	4.67 \pm 0.49
. Having the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base	2	4.67 \pm 0.50	2	4.77 \pm 0.69	4	4.57 \pm 0.52
. Communicating well wi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3	4.65 \pm 0.50	3	4.60 \pm 0.51	1	4.71 \pm 0.48
. Keep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4	4.59 \pm 0.57	4	4.47 \pm 0.59	2	4.70 \pm 0.52
. 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5	4.55 \pm 0.54	5	4.55 \pm 0.54	5	4.55 \pm 0.54
. Maintaining physical health for herself or himself	6	4.44 \pm 0.66	6	4.43 \pm 0.69	6	4.45 \pm 0.63
. 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7	4.42 \pm 0.67	7	4.43 \pm 0.66	7	4.40 \pm 0.68
. Contributing to the nursing advancement	8	3.91 \pm 0.69	8	3.95 \pm 0.67	8	3.88 \pm 0.70
. 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9	3.63 \pm 0.70	9	3.64 \pm 0.77	9	3.61 \pm 0.63
. Having a sense of humor	10	3.42 \pm 0.79	10	3.24 \pm 0.84	10	3.60 \pm 0.70

인 각각의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화능력 점수의 주요 예측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때 10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5 이하이었고, 공차한계는 0.67 이상이었으므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24].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 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구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 3가지 변수들은 문화역량 점수 변화의 16%를 설명하였다($p < .05$)(Table 5).

논 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간호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종, 민족, 종교, 언어, 성, 성적 지향, 계층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와 정체성을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25], 이에 맞는 역량과 자질을 지닌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6]. 이런 면에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요도는 최근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내 간호교육 실태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은 백분율 점수 환산 시 71.3%에 해당하며, ‘문화지식 및 기술’ 영역의 점수가 ‘문화인식 및 갈망’ 영역이나 ‘다문화 환자 만남 시 편안함’ 영역의 점수에 비해 가장 낮았다. Han[26]의 연구는 58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60.80%점수를 보였다. 측정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두 연구의 점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Han[26]의 연구에서도 ‘문화 간호 지식과 기술’ 영역 점수가 문화인식이나 민감성 영역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Yang 등[8]의 연구에서의 방문간호사(55.2%), 보건진료원의 문화역량은(58.2%)보다 높았다. 이는 척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최근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심이나 간호교육 및 간호 연구의 관심이 증가된 것을 반영하였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간호학 전공과 실습 경험한 4학년의 문화역량이 1학년에 비하여 문화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인 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래 간호학문은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지닌 대상자를 돌보는 학문이므로, 간호학 연구자들은 간호학 교과과정을 통해 문화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20]. 특히 본 연구에서 1학년의 문화 인식과 갈망, 문화 만남 영역의 점수가 4학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본 연구가 실시된 기간 소셜 미디어[27]와 미디어와 대학 교육환경[28]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이나 대학 환경 변수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과 4학년 사이의 문화역량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 전공을 결정한 시기에 따라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문화역량이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요인이 대학 진학 및 전공 선택 시 영향을 주었는지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전문직 간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문화 역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문화역량이 높았고, 취업을 위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경우나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로 간호학을 전공을 선택한 경우보다 적성이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문화 역량이 높았던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이런 자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형성된 간호 전문직관이 문화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이전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 전문직의 돌봄 특성과 가치관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

Table 5. Major Affecting Factors on Nursing Competency

(N=200)

Affecting factors	B	SE	β	t	p
Q05	3.11	.86	.24	3.61	< .001
Q07	1.85	.71	.18	2.60	.010
Q09	1.48	.66	.15	2.14	.026
$R^2=.16$, $F=13.98$, $p < .001$					

Q05=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Q07=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Q09=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특히 일학년 학생들은 간호사 자질 중 요도 중 '간호 기술 발휘'와 '간호학 전문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4학년 학생들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 형성' 인간관계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더욱이 연령과 간호사 자질과의 상관성 분석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호기술 발휘'를 덜 중요시 여겼다.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이나[29] 간호사는[18] 간호 기술이나 간호지식을 중요한 간호사 자질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의 인성이나 건강관리 팀 안에서의 협동과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8].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실습을 접하면서 전문직 간호 현장의 요구를 접한 경험 후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지역사회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방문건강관리, 금연, 건강행태개선, 암 관리, 심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 관리 등 사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보건간호사의 '실무·기획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15,30], 다른 분야 비하여 좀 더 협동적 상호작용 능력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4학년 학생들은 지역사회 간호학을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서 일학년 학생에 비하여 전문직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 모두가 문화역량과 유의한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음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10가지 간호사의 자질 모든 영역에 걸쳐, 간호사 자질을 중요하게 지각할수록 문화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10가지 간호사 자질 모두 문화역량 증진에 필요한 전문직 역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문화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의 '간호지식'이나 '간호기술'보다는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구 능력'이 가장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이나 간호기술 증진에 목표를 둔 학습방법 보다는 인성개발 중심의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간호 전문직 윤리 교육이나 간호 연구 교육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Choi 등[10]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교육 모델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떠나서 그룹 토의, 비디오 토의 토론, 온라인 토의 토론 및 성찰 일지

등을 권장하였다. 학습도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Yang 등 [8]의 연구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돌본 경험이 있었거나 외국을 여행한 경험이 방문간호사의 문화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듯이,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여행, 자원봉사활동, 외국인 접촉 등 다양한 문화 경험을 활용하여 간호사의 문화역량 개선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국내 다문화에 민감하고 신뢰도 높은 간호사 자질 중요도 측정도구와 문화역량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의 주요 다문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예비조사 시 간호대학생 4개 학년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Cronbach's α 는 .79였는데 본 연구에서 1학년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Cronbach's α 는 .74로 다소 감소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어서 본 도구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졌다고 해석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다른 간호대학생과 임상실무자에게 적용하여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하고, 국내 교육 및 실무 현장을 잘 반영하는 안정된 측정도구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래 문화역량 개념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나라의 시대적 배경, 인구 구성 및 주요 건강 문제에 따라 크게 의미가 달라지므로,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성에 무리가 뒤따른다고 판단한다. 최근 국내 다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26].

실제로 간호사 자질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수행을 직접 관찰 도구를 사용하면, 관찰자의 편견이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15,17]. Kim[18]은 비판적 사고, 리더십, 정보 활용능력, 문제 해결능력, 외국어 활용능력,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포함하여 간호사 자질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전문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지식이나 간호기술 등의 개념을 단순화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국내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을 모두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해석 및 일반화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문화역량’ 측정도구와 ‘간호사 자질 중요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주요 간호사 자질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 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구 능력’을 중요시하는 간호대학생일수록 문화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는 문화역량이 높은 학생, 혹은 간호사인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시 지식이나 기술 보다는 간호에 대한 열정이나 전문직 윤리를 강조하고 탐구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다문화에 민감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직 자질 측정도구와 문화역량 도구 개발에 대한 추후 연구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임상실무자에게도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하여 안정된 측정도구로 발전되도록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REFERENCES

- Hall LW, Moore SM, Barnsteiner JH. Quality and nursing: Moving from a concept to a core competency. *Urologic Nursing*. 2008;28(6):417-425.
- Von Ah D, Cassara N. Perceptions of cultural competenc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Open Journal of Nursing*. 2013;03(02):182-185.
<http://dx.doi.org/10.4236/ojn.2013.32024>
- Statistics Korea. Current interracial marriage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5 December 12].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quick_02
-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Statistics 2014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5 November 30].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5//20150701229489_1_1.pdf.files/PDFBook.html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Content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for instructor [Internet].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cited 2015 December 13]. Available from: <http://www.alio.go.kr>
- Swider SM, Krothe J, Reyes D, Cravetz M. The quad council practice competencies for public health nursing. *Public Health Nursing*. 2013;30(6):519-536.
<http://dx.doi.org/10.1111/phn.12090>
- MacNeil J, Ryan M. Enacting global health in the nursing classroom. *Nurse Education Today*. 2013;33(11):1279-1281.
<http://dx.doi.org/10.1016/j.nedt.2013.01.025>
- Yang SO, Kwon MS, Lee SH.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3(3):286-295.
- Kim YK, Choi HM, Kim KH, Sung SM.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Report No.: 2012-41.
- Choi KS, Morgan S, Thongpriwan V, Lee SY, Jun MH. A proposed teaching model to improve cultural competency care for undergraduate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3):424-434.
- The California Endowment. Principles and recommended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oodland, CA: The California Endowment; 2003. 94 p.
- Campinha-Bacote J.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healthcare services: A culturally competent model of care. 4th ed. Cincinnati, OH: Transcultural C.A.R.E. Associates.; 2003. 130 p.
- Long TB. Overview of teaching strategie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2012;19(3):102-108.
- Quad Council of Public Health Nursing Organization. Public health nursing: Keeping America healthy. Imprint. 2006;53(1): 28-31.
- Kim HS, Kwon MH, Kwon YS, Kwon YC, Kim DO, Kim SH, et al.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Pacific Books; 2016. 888 p.
- Kelley ML, Fitzsimons, VM.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Culture, curriculum, and community in nursing. Sudbury: Jones and Bartlett; 2000. 352 p.
- Cowan DT, Wilson-Barnett J, Norman IJ. A European survey of general nurses' self assessment of competence. *Nurse Education Today*. 2007;27(5):452-458.
- Kim S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re competency of nurses & nurse managers in a community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844-2851.
- Bang KS, Kang JH, Jun MH, Kim HS, Son HM, Yu SJ, et al. Professional value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1;31(1):72-75.
<http://dx.doi.org/10.1016/j.nedt.2010.03.019>
- Vandenberg H, Kalischuk RG. Conceptualizations of culture and cultural car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exploration and critique of 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2014;21(3):99-107.
-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G*power [Internet]. Düsseldorf: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2016 [cited

- 2016 March 15]. Available from:
<http://www.psych.uni-duesseldorf.de/abteilungen/aap/gpower3/download-and-register>
22. Rew L, Becker H, Cookston J, Khosropour S, Martinez S. Measuring cultural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3;42(6):249-257.
 23. Medigovich K. Satisfactory, good and outstanding nurses: Perceptions of nurses, their colleagues and patients. Perth: Murdoch University; 2012. 265 p.
 24. Han SS, Lee SC. Nursing and health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nnarae Academy; 2012. 480 p.
 25. Sommer S.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1;40(6):276-278.
 26. Han SY.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University; 2014. 85 p.
 27. Hammer J, Swaffar J. Assessing strategic cultural competency: Holistic approaches to student learning through media. *The Modern Language Journal*. 2012;96(2):209-233.
<http://dx.doi.org/10.1111/j.1540-4781.2012.01335.x>
 28. Cuellar NG, Brennan AMW, Vito K, de Leon Siantz ML. Cultural competence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8;24(3):143-149.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8.01.004>
 29. Shin HS. Analysis on an educational needs and importances of nurses' core competency [master's thesis]. [Suwon]: Ajou University; 2010. 68 p.
 30. Kim JS. Concept analysis of health promotion competence in public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22(3):281-289.